정치포탈|칼럼뉴스
서프라이즈
WWW.SEOPRISE.COM

장자연... 박진영...그리고 노무현...

번호 25455 글쓴이 아이볼 조회 30218 등록일 2009-3-20 09:39 누리2278 톡톡0

장자연... 박진영...그리고 노무현...
(서프라이즈 / 아이볼 / 2009-03-20)

2001년 7월 10일 뉴스...

MBC TV '시사매거진 2580'의 '한·일 비교 연예인 대 매니저'를 통해 한국 연예인들이 제작자 및 연예매니저로부터 불평등 계약을 맺고 노예취급 받으며 고통받는 현실을 방영했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그러자 김건모, 박진영, 탁재훈, 신승훈, 신화, god, 조성모, 유승준, 김현정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인 120명은 이상하게도 자기 동료 연예인들이 고통당하는 걸 고발해준 MBC에 항의하며 MBC가 사과하지 않으면 MBC엔 무기한 출연거부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들은 MBC TV '시사매거진 2580'이 한국 연예인들이 제작자 및 연예매니저로부터 불평등 계약을 맺고 노예취급 받으며 고통받는 현실을 방영하자 동료연예인들에게 불평등 계약으로 노예 취급하며 고통을 주는 제작자와 매니저에게 항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고발해준 MBC에 항의하는 참으로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진영 씨는 "그런 노예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재 제작사와 연예인 간의 표준계약서도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건모 씨는 MBC가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하며 노예라는 말로 몰아붙이는 우리나라 보도 실정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수와 매니저는 동등한 관계라고 주장한 뒤 9시 뉴스데스크 첫 화면에 사과문을 보도하고 '시사매거진 2580' 측이 정당한 방법으로 정정취재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행될 때까지 무기한 출연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다음은 연예인 기자회견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중 일부

"…… 3인조 남성가수 소방차 출신의 김태형 연제협 이사는 "내가 아는 제작자 중 시사매거진 2580에 나오는 제작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가수출신 제작자인 내가 보기에 2580이 보도한 내용은 연예인들과 제작자 및 연예매니저의 관계를 지나치게 종속적인 관계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가수 신승훈 씨는 “가수와 매니저들은 대부분 ‘동반자’로 생각하고 일하는데 2580이 보도한 종속적 관계의 ‘노예’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가수 겸 제작자인 박진영 씨는 “문제의 핵심은 MBC의 보도내용이 편파적으로 왜곡된 것”이라며, “연예인과 매니저의 일부 종적인 관계를 전체인 것처럼 보도한 것과 ‘노예계약’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연예인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탁재훈 씨는 “연예인들을 시청률과 요깃거리로만 여기는 방송사가 많다”는 지적을, 김건모 씨는 “MBC가 노예라고 표현한 것은 평소 연예인들을 노예처럼 생각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모 씨는 “연예인과 제작자는 동등한 관계”이며 “‘시사매거진 2580’은 이를 편파, 왜곡 보도한 것이므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연예인들도 무기한 MBC 텔레비전에 출연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연제협 소속 연예인들은 연제협이 최근 MBC TV에 출연 거부를 결의한 것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출처 :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방송 내용 전혀 문제 없었다”, 오마이뉴스, 2001년 7월 12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장자연씨 같은 피해자가 어디 한둘이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PD들한테 옷 벗고 달려드는 연예인들은 없었으랴...

그래도 그렇지...
후배가 성 상납 술접대로 죽어나갔음에도
저놈들 중에 단 한 놈도
주딩이 놀릴 배짱 가지고 있는 놈들은 없다는 거지...
정작 자기들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배라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는 뒤로 빠져라...’
후배들에게 이딴 개소리나 하면서
서로서로 핥고 있을 거란 거지....

그래서 한 윤리강사가 그러더라...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느냐 하면
정의를 이야기하면
왕따 당하는 나라라고.....

노무현 2002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를 선언하며...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지 못했다.

그게 비록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했던 말을 한 사람들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패가망신을 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정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해야 했다.

눈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유지하면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어머니가 제가 남겨주었던 저의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바람 부는 데로 물결 치는 데로 굽히면서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도 역시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 아이볼

연예인을 남몰래 도와온 고마운 후원자들...
(서프라이즈 / 딥쓰로우 / 2009-03-20)

이 글에서는 장자연 리스트 같은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쪽에 관심있는 분은 괄호 안 링크(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24928&table=seoprise_12&position=pos_cmt#pos_cmt)를 이용하시거나 전문 검색 사이트 '게이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연예계 발전을 위해 남몰래 지속적으로 가열차게 후원해오신 인사들에 대한 소개자료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송병준(방송인, 작곡가)
출생 : 1960년 3월 15일(49세)
학력 : 톨레도대학교 인류학 학사
수상 : 제33회 백상예술대상 기술상(1997년)
경력 : 2006년 그룹 에이트 대표이사(현)
장나라, 소지섭, 한예슬 등 발굴
[출연 드라마] '사랑과 결혼'(1995), '환상의 커플'(2006)
[출연 영화] '가위'(2000)
[드라마 제작] '미안하다 사랑한다'(2004), '궁'(2006)
'꽃보다 남자'(2009)
연락처 : (주)그룹 에이트(http://www.group8.co.kr)
주소 :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6-5 대원빌딩 5층
전화 02-6900-8888 팩스 02-6900-8890

전기상(PD)
출생 : 1959년(50세)
경력 : 1985년 KBS 입사
KBS TV제작본부 드라마1팀 차장
연출 : '사랑의 인사', '파파', '완벽한 남자를 만나는 방법'
'보디가드', '쾌걸춘향', '마이걸'
'쾌걸춘향'으로 한채영과 재희 스타덤에 올림
SBS 마녀유희(2007), KBS 꽃보다 남자
신인발굴에 뛰어나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림

전창근(PD)
경력 : KBS근무
2005년 수목드라마 "부활" 공동연출
2006년 드라마시티 "나의 아름다운 친구", "첫사랑"
"기억이 잠든 사이", "그녀가 웃잖아"
2007년 TV소설 "아름다운 시절"
2008년 "내 사랑 금지옥엽"

정세호(PD)
학력 :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 학사
수상 : 2002년 국무총리 표창
경력 : 초록백미디어 고문(현)
2006년 호원대학교 방송연기학과 교수
연출 : MBC "내 인생 황금기"

고대화(연예기획자, 전 SBS PD)
출생 : 1964년 7월 15일(45세) 대전광역시
소속 : 올리브나인 대표이사/사장
학력 :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
수상 : 2008년 SBS 연기대상 제작공로상
경력 : 2005년 올리브나인 대표이사/사장
2002~2003년 SBS美 대표이사/사장

이웅열(기업인)
출생 : 1956년 4월 18일(53세) 서울특별시
소속 : 코오롱그룹(대표이사 회장)
가족 : 父 이동찬
학력 : 조지워싱턴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
수상 : 2008년 금탑산업훈장
경력 : 2000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e-biz위원회 위원장
친분 : 그룹 에이트 송병준 대표와 친함

신동빈(경영전문가, 기업인)
출생 : 1955년 2월 14일
소속 : 한국롯데그룹 부회장
가족 : 신격호의 차남
학력 : 컬럼비아대학교
수상 : 2006년 핀란드 백장미장 수상, 2007년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
경력 : 2004년 롯데호텔 정책본부 본부장
2004년 호남석유화학 공동 대표이사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 구단주 대행(일본명: 시게미쓰 아키오, 重光昭夫)

방성훈(언론인)
출생 : 1972년(37세)
소속 : 2008. 8월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 부사장
가족 :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장남
경력 : 1996년 9월 조선일보사 입사
2006년 1월 경영기획실 차장
2007년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 전무
조선일보 TCN 대표이사

하원(언론인)
출생 : 1949년 2월 12일(50세)
소속 : 백석대 제4대 총장(2009.2월~)
학력 : 서울대 문리대, 미 드레이크 대학교 대학원 신문학 석사
경력 : 1972년 조선일보 입사
2003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2005년10월 한국스포츠신문협회 초대회장
2005년 3월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사장
2008년 8월 백석대 대외협력 부총장
친분 : 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송병준 대표와 절친

이재영(신문인)
출생 : 56세
소속 : 중앙일보 광고본부장(2007.1~)
블로그 http://blog.joins.com/lejami

방상훈(신문인)
출생 : 1948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소속 : 조선일보 대표이사/사장
학력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 2003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2002년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위원장
2002년 아시아신문재단(PFA) 한국위원회 이사

*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연예인들을 발굴 · 후원하여 스타덤에 올려주고서도 한사코 자신들의 선행을 숨기려는 이 시대의 참다운 의인들입니다.

ⓒ 딥쓰로우